

현대제철, 노사 임단협 평행선... 결국 'H형강 감산'

16일 8000여명 48시간 파업
생산중단, 7만톤 철강 생산량 ↓
이달말 3분기 실적 발표 예정

노조의 파업선언과 건설경기부진 등 악재가 겹친 현대제철이 H형강 감산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는 오는 16일 오전6시부터 전국고속노조 산하 인천·충남·포항·당진·광전지부 등 5개 지회 조합원 8000여명을 대상으로 48시간 파업을 벌인다.

현대제철 노사는 14차에 걸친 임금교섭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간 임단협은 상견례 이후 3개월째 난항이다. 올해 안에 타결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영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상태다. 여기에 통상임금·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임금 교섭 테이블이 아닌 노사 간 별도기구에서 논의할 것을 주

장해 사측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앞서 사측은 12차 교섭에서 성과급 150%+250만원을 제시했고 임금은 정부의 최저임금법에 맞춘 임금체계 개편

과 연계해 차기교섭에서 다루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현대차 임금협상 타결 가이드라인에 맞춰 교섭하고 있다면서 이런 제안을 거부했다.

현대제철은 노조의 파업선언으로 생산·출하 등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건설 경기 부진으로 철근·H형강 감산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물량 조절로 재고를 줄이고, 낮은 가격을 반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이달 중 철근을 비롯한 H형강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근·형강 등을 생산하는 인천공장, 포항공장을 중심으로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생산 중단으로 7만톤 가량 철강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재고 증가에 철근 유통 가격은 7월 톤(t)당 70만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9월 말 현재 64만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수입산과의 가격차는 7월 5만원에서 현재 2만5000원 수준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현대제철의 3분기 실적은 이미 먹구름이 낀 상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10월말 3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전망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며 "생산을 중단하면서까지 가격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3분기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대제철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만 445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3% 줄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LG U+, 동반성장에 2222억원 쏟아

LG유플러스가 중소 협력회사와 동반성장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5G 시대 통신업계 생태계 선순환을 선도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향후 3년간 중소 협력회사에 총 2222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서울시 구로구 동반위 회의실에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LG유플러스는 중소 협력사의 기술 혁신을 위한 공동기술개발에 500억원, 기술발전 환경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에 500억원 등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동반성장펀드, 신성장펀드 등 경영안정 금융지원 분야에 900억원을 지원한다.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지불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5G 장비 국산화, 신제품 개발

지원 등 LG유플러스 핵심 사업인 5G 분야에서 중소 협력회사들과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중소 협력회사들과 ▲5G 생태계 선순환 선도를 위한 기술 연구과제 ▲5G 코어망 집선스위치 및 5G 전송망 백홀장비 국산화 ▲5G 장애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광선로감시 시스템 개발과제 등에서 협업을 추진해 왔다. 또 스타트업과 중소 벤처기업들이 자유롭게 5G 서비스와 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개발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5G 이노베이션 랩'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LG유플러스는 중소 협력회사 지원과 함께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도 지켜나기로 했다.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은 동반위가 대중소기업 상생의 필수 추진 사항으로 제정한 것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한국지엠-노조 합의점 찾기 '불발'

사측 기본급 인상·성과급 지급 불가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 위기감 확산

일주일간 한시적으로 파업을 중단했던 한국지엠 노조가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10일 단체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다.

9일 전국고속노동조합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전날 오전부터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본사 본관 안코르룸에서 10차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측의 제시안을 노조가 수용하지 않아 교섭은 합의 없이 끝났다.

이번 협상에서 사측은 노조가 요구해 온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 대신 조합원 1인당 신차 구매 시 차종별 100만~300만 원씩의 인센티브 바우처를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급 대상은 재직 중인 직원과 가족으로 사측이 제시한 안은 차종별로 ▲트레일 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바우처 지급



한국지엠 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연합뉴스

안이 미국 GM 본사 최고경영진의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기존 요구안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협상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 인천 부평2공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 계획,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 사업계획, 창원공장 엔진생산 등에 대한 확약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국지엠 노사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 전체를 둘러

싼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들어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완성차 업체 판매량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지엠은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소비자들도 신뢰도 외면하는 모양새다.

올해 3분기 완성차 5개사(현대차·기아차·쌍용차·르노삼성·한국지엠)의 내수판매량은 36만2021대로 전년 동기(37만258대)보다 2.2% 감소했다. 기아차(13만2447대)와 르노삼성(2만3896대)은 각각 4.3%, 11.5% 증가했다.

반면 현대차(16만3322대), 쌍용차(2만4020대)는 4.7%, 9.6% 줄었다. 한국지엠은 1만8336대로 무려 23.0%나 감소했다.

/양성운 기자 ysw@

KT "전국 18개 명산에도 5G 터진다"

남산, 북한산 등에 커버리지 구축

KT는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 대표 명산에 5G 커버리지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KT는 우리나라에서 단풍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설악산과 오대산에 5G 커버리지를 구축하고, 서울 근교에서 단풍을 즐기는 고객들을 위해 서울 남산, 북한산, 수락산, 아차산, 인왕산에도 5G 개통을 완료했다.

특히 매년 단풍객들이 즐겨 찾는 오대산에는 월정사와 인근 식당가, 주차장뿐 아니라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이어지는 전나무 숲길에도 5G 커버리지를 구축했다.

KT는 전국적으로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4주까지 내장산, 속리산, 덕유산, 주왕산 등을 포함한 전국 약 18개 이상의 명산에 5G 커버



KT 네트워크부문 직원들이 강원도 오대산 내 월정사에서 5G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KT

리지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산과 등산로엔 광케이블 설치가 어렵고 전과 전달이 어려운 지형적 특성 때문에 기지국 설치 공사와 품질확보가 까다롭다. KT는 다양한 환경에서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고객들이 많이 모이는 가을 명산에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고객 체험 커버리지 극대화를 위해 지속 힘쓴다는 방침이다.

/김나인 기자

삼성SDS, 블록체인 한국 대표로 선정

삼성SDS는 자사가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블록체인 대표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9일 밝혔다.

세계적인 IT 자문기관인 포레스터는 최근 발간한 리포트에서 아·태 지역 블록체인 생태계 확산에 기여한 삼성SDS(한국), JD클라우드(중국), NTT데이터(일본), IBM(태국)을 각각 블록체인 대표 기업으로 선정하고 적용사례를 소개했다.

삼성SDS는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로 금융, 물류, 제조, 공공 등의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주

진하고 있고 컨설팅에서 실제 적용까지 다양한 블록체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포레스터는 삼성SDS의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로 구축한 은행연합회뱅크사인 서비스를 블록체인 생태계 확산의 대표 사례라고 밝혔다.

뱅크사인은 분산합의와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특성을 적용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 인증 서비스다.

물류분야에서는 삼성SDS가 관세청이 주관하는 수출통관 물류서비스에

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출관련 기관·기업들이 수출품 세관 신고부터 최종 인도과정까지 각 단계별 발생 서류를 빠르게 공유 받고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성SDS는 넥스레저, 하이퍼레저 패브리, 이더리움 등 이기종 블록체인 네트워크간 연결을 위해 네덜란드 3대 은행 중 하나인 ABN AMRO, 유럽 최대 물동량의 로테르담 항만청과 '딜리버'를 공동 개발했다.

제조 분야에서는 삼성SDI의 글로벌 스마트 계약 시스템에 넥스레저를 적용하여 투명하고 표준화된 글로벌 전자계약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